

韓國 準產油國 대열에 진입

마리브 油田에서 35萬배럴 原油入港 月 60萬배럴 生産 安定 供給 가능

北예멘 마리브鑛區에 우리나라企業이 資本에 참여하여 개발한 原油가 지난 2月20日 油公 워너호에 실려 관계인사들의 성대한 환영을 받으며 蔚山港에 첫 入港을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準產油國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물론 이 原油가 우리나라 國土에서 나온 기름은 아니지만 海外 油田開發에 韓國企業이 직접 참여하여 生産한 原油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84年 3月에 韓國企業이 事業許可를 받아 마리브鑛區에 참여하여 준비기간을 거쳐 本格的인 가동에 들어간지 4年만인 87年 12月에 原油가 생산되어 우리나라 參與持分에 해당하는 35萬 배럴이 처음으로 船積되어 入港한 것이다. 油公은 또 다시 마리브油田産 原油중 北예멘 政府 몫으로 배당된 100萬배럴도 추가로 도입해 올 계획이라고 한다.

海外開發原油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4년도에 인도네시아 西마두라油田에서 石油開發公社가 美 코데코 에너지社와 50 : 50의 비율로 제휴하여 생산된 시험원유 80萬배럴이 두차레에 걸쳐 들어온 바 있다.

그러나 西마두라油田은 하루 生産量이 1,700 배럴에 불과하여 油田開發에 필요한 경비조달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經濟性으로 볼 때 기여도가 낮아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마리브油田은 經濟性이 높을 뿐 아니라 기름의 質도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마리브油田이 量的으로나 質에 있어서 사실상 첫 成功作으로 石油業界에서 평가하고 있다.

마리브鑛區중에서 이번에 生産을 개시한 알리프油田은 生産量이 하루에 15萬배럴을 기록하고 있으며 88年 중반부터는 17萬5,000배럴, 來년에는 20萬배럴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地域은 추가로 油田發見性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앞으로도 鑛區가 확대되어 生産量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리브油田 開發에는 우리나라에서 油公, 三換企業, 現代綜合商社, 石油開發公社 등 4個社가 모두 1億 5,000萬 달러를 투자하여 美國의 헌트社 및 액슨社와 共同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측의 持分은 24.5%이며 4個會社別로 보면 油公이 65%, 三換이 15%, 現代가 10%, 油開公이 10%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石油問題에 정통한 中東經濟調查誌(MEES)에 따르면 마리브油田은 지난 84年 7月 알리프 地域에서 최초로 石油가 발견된 이후 흥해의 살



리프港까지 430km의 送輸管 설치공사 集油시설 등 開發作業을 進行해 왔는데 지난해 9월에 本公식을 現地에서 거행하고 本格的인 生産作業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投資持分만큼 利益金을 기름으로 配當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原油導入時에 유리한 立場을 確保하게 되었다.

마리브油田의 生産量이 하루 平均 20萬배럴일 경우 韓國측이 配當받을 수 있는 原油는 하루 약 2萬배럴로 우리나라 原油導入量 53萬배럴의 4%에 해당하는 기름을 長期的으로 공급받게 되어 安定需給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또한 原油價格을 배럴당 평균 18달러로 基準할 때 年間 1億3,000萬달러 이상의 수입 대체 効果を 거두어 國際收支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石油業界에서는 이번 4個會社의 油田開發은 成功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2年間이면 投資費의 전액이 회수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石油開發은 大規模의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事業이며 成功할 경우 수익성이 큰 반면에 위험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리브油田의 성공으로 과거 우리나라

가 石油開發事業에 투자한 費用을 모두 보상하고도 상당한 收益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마리브原油는 輕質, 硫黃 成分이 적어 良質의 石油로 늘어나고 있는 國內 輕質 石油製品의 수요를 충족하게 됨은 물론 尤 황분이 적어 精製費가 節減되고 公害 防止에도 功을 담당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그리고 이 原油를 輸送하는 油公 워너호의 航路에 있어서도 이란-이라크의 戰爭의 위협이 상존하는 호르므즈海峽을 통과하는 페르시아灣 과는 거리가 떨어진 香港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原油의 安全輸送에도 別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0年代의 石油波動이후 不安定한 油價와 産業發展과 國民生活向上에 따른 油類消費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政府에서는 原油의 安定的物 量 確保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따라 原油確保를 多邊化하기 위하여 國內 大陸棚 探査와 海外油田 開發에 힘을 쏟고 있는 데 지난 81年 인도네시아 西마두라 鑛區에 진출한 이래 美國 陸上油田, 인도네시아 아당油田 나우카油田, 수단 나일 및 동골라油田, 그리고 北예멘의 마리브油田 등 도합 6개 鑛區 개발에 착수하여 이번에 마리브油田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政府는 현재 開發 進行중인 油田이외 에도 오는 90年代까지 총 5,000億원을 투입하여 기름이 나오고 있는 海外油田 10個所를 선정하여 持分買入方式으로 原油를 確保해 나갈 방침 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海外油田 개발이 순조롭게 進行되면 전체 石油所要量의 20% 이상을 90年代까지 확보하게 되어 安定需要의 기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政府는 大陸棚 探査에 주력하는 한편 油田의 海外開發의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는 非産油國의 서러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며 서서히 準産油國의 대열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編輯室)